

공연장-공연단체 “우린 동반자”

문화예술위·광주문진위 상주 프로그램 파트너십 맺고 지속적 문화콘텐츠 생산 일반 시민 참여 ‘퍼블릭 프로그램’ 운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공연장과 지역의 공연단체들이 의기투합, 새로운 문화를 일군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문진위가 진행하는 공연장 상주 프로그램은 각 공연 단체가 공연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지속적으로 문화콘텐츠를 생산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를 확보하고, 지역 단체들은 안정된 여건에서 작품활동을 진행하는 의미있는 프로젝트다.

올 신규사업인 터라 문진위는 윤성진(전 문화부 책임컨설턴트), 선재규(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담운영 과장), 권순석(춘천마임축제 사무국장)씨 등 공연 분야 전문가들을 컨설턴트로 참여시켜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진행 중이다.

각 단체들은 무대 공연 작품과 함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프로그램’(무료 운영)을 운영한다.

▲한소리회와 금호아트홀

12월까지 매달 토요일 오후 3시 ‘3시의 한소리 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음악회를 진행한다. 첫 번째 프로그램인 ‘모녀 음악회’를 시작으로 ‘여자들의 수다’,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한 음악회’ 등 다양한 주제로 연주회가 준비돼 있다. 박미애·유형민·김미옥씨 등 한소리 회원들이 출연하며 임정행·박인수·노영심 등 특별 출연 손님들의 면면도 기대감을 갖게 한다.

또 ‘한마음 여성합창단’도 운영한다. 가곡, 팝송, 가요 등을 배워보는 프로그램으로 12월 4일에는 발표 무대도 갖는다.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과 남구문화회관

30일 열리는 첫 번째 무대 ‘지역춤 작가전’을 시작으로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에는 태한국무용단의 ‘원하옵고 바라옵고’, 선댄스 프로젝트의 ‘선에 관하여’ 등이 선보인다.

또 청소년을 위한 토요 상설 페스티벌을 7월 3일부터 4차례 진행할 계획이며 9월 18일에는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20주년 우수 레퍼토리 공연을 갖는다. 이어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의 ‘뿌리 깊은 나무-남종화의 거목 허백련’(11월 28일)과 신진무용인 발굴 무대(12월 1일) 등이 준비돼 있다.

▲아이리리아와 광주동구문화센터

해설이 있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판소리·대금·해금·가야금 연주회 등 모두 10차례 상설 공연을 진행한다. 또 국악 뮤지컬 장단과 전통악기를 테마로 한 아동과 유아 대상 국악뮤지컬도 준비 중이다.

소리북과 판소리 동호인을 대상으로 한 ‘일고수 이명창’과 전통·창작 타악기를 배워볼 수 있는 ‘일상을 두드려다-난타’를 7월부터 20회 일정으로 진행한다.

▲푸른연극마을과 동산아트홀

광주연극계 수상작인 ‘사평역에서’를 무대에 올린 데 이어 고마나루 연극계 대상 수상작인 ‘랑아 랑아 영광아’ ‘어머니, 그 아름다운 이별 후에’ 등을 잇따라 선보인다.

주부 연극 동아리 ‘YOU’S’도 운영한다. 극단 대표 오성완씨와 김길수 순천대 교수, 단원 이담금·정일행씨 등이 즉흥연기와 판토크마임을 가르치고 직접 연극을 만들어 무대에 올린다.

김미숙뿌리한국무용단



▲극단 진달래 피네와 문예정터
세익스피어 4대 비극 중 하나인 ‘백베스’를 초극, 연극, 오페라, 뮤지컬 등 4가지 장르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한다.
‘맘마미야’, ‘페임’ 등 유명 뮤지컬을 배워보는 뮤지컬 따라잡기, 연극 특강, 연극과 무용, 무대 서보기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12월에는 공연 총연습 현장을 방문하는 ‘오픈 리허설’ 프로그램도 갖는다.
▲박준희 발레단과 빛고을시민문화관
발레댄스와 함께하는 신체 밸런스 알기, 댄스스포츠와 함께하는 스트레스 탈출, 힙합 & 비보이 프로그램 등을 준비했으며 해설이 있는 워크숍과 댄스뮤지컬 ‘청춘 불패’ 공연을 주 사업으로 채택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한소리회 단원들

‘가수 스님’들 광주에 뜬다

7월 1일 문예회관서

향기로운 노래 한마당



시명스님 심진스님 지연스님

전국의 내로라하는 ‘가수 스님’들이 광주에 뜬다. 생명평화를 애호하는 불교NGO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대표 법일스님)는 내달 1일 오후 7시30분 광주 문예회관에서 ‘맑고 향기로운 노래 이야기’를 주제로 신명난 공연 한마당을 펼친다.

이번 공연은 종성스님·시명스님·심진스님·범능스님·지연스님 등 총 5명 노래하는 스님들을 한자리에 볼 수 있는 드문 기회다. 또한 이번 행사는 불교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 ‘불교NGO센터’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뜻도 담고 있다.

해남 미항사 주지인 금강스님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전국승가연합회 법교대회 대상 수상자로 해남 대흥사에서 수행중인 종성스님이 법교 시연을 펼친다. 또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한 불교명상음악가 시명스님이 우리에게 익숙한 ‘청산은 나를 보고’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을 들려준다.

‘그대를 위한 시’ 등의 음반을 낸 심진스님은 ‘바람부는 날엔 너에게로 가고 싶다’, ‘짜릿골’ 등을 부르며 ‘광주출정가’와 ‘꽃이 꽃아’의 작곡가 범능스님(속명 정세현·불지불교문화원장)은 ‘꽃등 들어 남 오시면’, ‘꽃을 바치나이다’ 등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로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연스님도 ‘산은 산 물은 물’ 등을 통해 잔잔한 울림을 선사한다. 이외에 관음무용단이 아름다운 춤을 선보이고 부부 나팔창단·천음실내악단도 함께해 특별한 무대를 꾸민다. 티켓 가격 2인 1매 3만원. 문의 062-223-362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전국청년조각전 ‘스파클링 & 신드롬’

내달 7일까지 광주롯데갤러리

광주롯데갤러리는 내달 7일까지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조각가들을 초청, ‘전국청년조각전-스파클링 & 신드롬’전을 연다.

참여작가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한 20대 중·후반 젊은 작가. 반짝거리는, 재기 넘치는 등의 여러 의미를 담은 ‘스파클링’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전시에서는 유망하고 참신한 젊은작가들의 다양한 실험과 변화를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인다.

광주·전남에서는 김강석·김경란·이조홍·천기정 등이 참여했으며 강인우·구은정·이상운(이상 서울·경기), 감지호·구민호·박지성·임지민(이상 경상) 등 전국적으로 총 11명의 작가들이 초대됐다.

청년조각가들이라지만 회화 등 타장르와의 혼합과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다. 작가들은 내용과 형식면에서 장르



박지성 작 ‘등진돼지’

허물기, 탈(脫)경계, 새로움에 대한 도전 등을 통해 일상적인 시선을 벗어난 다양성에 대해 생각하고, 창작 행위의 연속성과 그 가치에 대한 고심을 담은 작품을 생산해 냈다. 문의 062-221-180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문화 기획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문화예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과정인 ‘Creative Arts Lab’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술강사 및 문화예술교육관련 실무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며 창의성 복원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과정(10명), 창의적 체험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과정(30명)으로 나눠 진행된다.

강의는 토론극 디자인 워크숍, 시 퍼포먼스 워크숍, 관찰과 표현 워크숍 등이며 이철형(비주얼씨어터 ‘꽃’ 대표), 남정(간 텍스트 대표), 정소연(문화연대 팀장), 예민(가수·뮤지컬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선다. 오는 7월부터 11월까지 모두 5개월 과정. 마감은 오는 7월 2일까지다. 전액 무료. 문의 062-670-5760.

/김미은기자 mekim@

‘다문화 산모도우미’ 이용가정 모집

광주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한신)는 6월부터 11월까지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 취업지원사업 일환으로 ‘다문화가정 산모도우미 파견 사업’을 운영키로 하고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광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예정 3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산모도우미 서비스 이용가정이 되면 1일 5시간, 총 70시간 도우미가 파견돼 산모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다. 문의 062-363-2963.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는 늘 사랑한다는 말, 3명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혼자 마음의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KUCI PHARM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폐쇄성 심장·수두기 병증 병후의 재발 예방제, 노년기
- 눈의 건조함과 안과, 다중중
- 심장·폐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외)수근제 의 안과, 안질환을 예방할 역할
- 알코올성질환 및 알코올성 다음 중성지방 증가, 고지혈증, 수지침, 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인질 캡슐

광고문의: 1036-0600